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

[정답] 홀수형 기준

1.⑤ 2.① 3.① 4.② 5.④ 6.② 7.③ 8.④ 9.② 10.①  
11.④ 12.④ 13.④ 14.③ 15.② 16.④ 17.⑤ 18.① 19.② 20.②  
21.② 22.③ 23.① 24.④ 25.③ 26.④ 27.① 28.⑤ 29.⑤ 30.②  
31.③ 32.④ 33.⑤ 34.⑤ 35.③ 36.⑤ 37.③ 38.① 39.④ 40.②  
41.② 42.⑤ 43.① 44.⑤ 45.④ 46.③ 47.① 48.② 49.③ 50.④  
51.① 52.② 53.⑤ 54.③ 55.② 56.③ 57.③ 58.⑤ 59.④ 60.②

[1-6] 듣기

### 1. 이제 과학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사 : 여러분, 오늘은 기상 현상 중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  
까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빗방울의 모양입니다. 빗방울은 어떤 모양일까요?

학생 1(남) : 선생님, 길쭉할 것 같은데요.

학생 2(여) : 저는 낙하산 모양일 것 같아요.

학생 3(남) : 글썬요. 제 생각에는 길쭉한 밤톨 모양일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그리  
잖아요.

교사 : 다양한 대답이 나오네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빗방울의 초기 모양부터 알  
아보죠. 빗방울의 초기 모양은 축구공 같은 구형인데,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낙  
하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의 저항을  
더 받겠죠. 그럼, 빗방울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휴지) 빗방울은 공기의 저  
항 때문에 아랫부분이 납작한 반구 모양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빗방울의 아  
랫부분이 납작해질수록 빗방울의 표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  
게 되겠어요? (휴지) 공기의 저항은 더욱 커지게 되고 빗방울의 모양은 더 납  
작해지겠죠. 결국 납작해진 빗방울은 공기의 저항 때문에 작은 빗방울들로 나  
누어집니다. 이제 빗방울의 모양을 아시겠죠?

#### 1. 사실적 사고(시각 자료의 순서 배열)

정답해설 : 빗방울의 모양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말을 잘 따라들으면서 빗방울의 모  
양을 찾아가야 한다. 먼저 초기의 빗방울 모양은 축구공 모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ㄱ이 되고, 다음에 저항을 받아 아랫부분이 납작한 반구가 된다고 했으니까 ㄷ이  
되고, 더욱 납작해진다고 했으니까 ㄹ이 되며 마지막으로 작은 빗방울로 나누어진

다고 했으니까 비의 모양이 된다. [답] ⑤

## 2. 이번에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인물 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숙종·영조 때의 거문고 연주자 김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김성기는 본래 궁궐에서 활을 만들던 사람이었으나, 음률을 좋아하는 천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문고를 배웠습니다. 거문고 연주에 뛰어난 기량을 보인 그는 매우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 명성을 더욱 높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비파와 통소를 연주하는 솜씨도 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는 ‘남시하며 숨어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은(釣隱)’이라는 호를 짓고, 강가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며 살았습니다. 김성기는 바람이 고요하고 달빛이 밝은 밤이면, 배를 저어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 통소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깨끗했던지 강가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떠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재주가 빼어나더라도 재주를 팔지 않고서는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지체 높은 이들의 잔칫집에 불려 다녔지만,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자신의 재주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으로 역모를 고발하여 대단한 권세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벌이다 취흥이 올라 김성기를 불렀으나, 김성기는 병을 핑계 삼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불려도 방에 드러누워 꿈쩍하지 않자 화가 난 권세가는 역정을 벌컥 냈습니다.

권세가 : (화를 내며) 만약 오지 않으면 내 장차 그 놈을 크게 벌하리라.

이 말을 들은 김성기는 말을 전한 사람에게 비파를 집어 던지며, 꾸짖었습니다.

김성기 : (준엄한 목소리로) 돌아가 그자에게 고하여라. 내 나이 칠십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소리도 모르는 자가 고발은 잘한다 하니, 나도 고발하여 죽여 보라고 일러라.

이 일이 있은 후 김성기는 더더욱 도성에 들어가는 발걸음을 끊고, 남 앞에서 연주하는 일도 드물었다고 합니다.

라디오 인물 열전,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2. 추론적 사고(인물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방송에서 소개하는 인물에 대해 청취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방송에 언급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김성기라는 인물은 통소를 잘 붙였지만 함부로 자신의 재주를 팔지 않았다는 말에서 이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즉, 재주가 있지만 예술가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화는 거짓으로 역모를 고발하여 권세가가 된 사람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꼳꼳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그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새로운 곡을 만들기는 했으나 통념을 벗어나는 독특한 연주법은 나오지 않는다. ③ 자기 수양을 통한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④ 부족한 재능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

## 3.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저거 봐 저거. 저 사람들 애완건을 데리고 와서는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네. 공원에 애완건을 데리고 나올 때는 비닐봉투라도 가져 와야 하는 거 아냐?

여학생 : 그러게 말이야.

남학생 :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인데, 참 불쌍사납네. 가서 한마디 좀 해야겠다.

여학생 : 그만둬, 애. 싸움이라도 나면 어찌려고.

남학생 : 그게 아니지. 우리가 모두 이용하는 공원인데 자기 생각만 하면 곤란하잖아. 저런 모습이 바로 이기주의 아닐까?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잖아. 서로 돕고 배려하며 조화롭게 사는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

여학생 : 제법이네!

남학생 : 저기 지는 해를 봐. 저 해가 지면 곧 달이 뜨지 않겠니? 또 달이 지면 해가 뜰 것이고……. 얼마나 조화로운 모습이니? 저 해와 달이야말로 서로 도우며 공존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저런 자연에서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해.

여학생 : 뭐, 해와 달? 그게 어떻게 이기주의가 극복된 공존의 모습이니?

남학생 : 잘 생각해 봐. 음~. 저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봐. 봄이 되면 잎이 다시 돋고, 여름이 되면 또 무성해지겠지? 그것도 서로 다른 계절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모습이잖아.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

회도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제비를 뽑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야.

여학생 : 점점……. 뭐? 계절? 제비뽑기? 참 나, 넌 왜…….

### 3. 추론적 사고(이어질 말의 추리)

정답해설 : 대화에서 여학생이 마지막 말로 할 이야기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학생과의 대화에서 이기주의를 극복한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남학생이 갑자기 제비뽑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학생이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공존에 관한 내용과 제비뽑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을 끌어들이는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서 말할 수 있다. [답] ①

### 4. 이번에는 어떤 발표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고등학교 ‘고대 문화 연구반’ 동아리 발표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마야의 상형 문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유럽에 처음 알려진 마야의 그림 문자들은 수 세기 동안 해독되지 못한 채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해독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체의 약 85%가 해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야 문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해독된 숫자 표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본수로 10을 사용하는 데 비해 그들은 기본수로 20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리 값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1, 10, 100으로 10배씩 증가하는 기수법을 쓰는 데 비해, 그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20배씩 증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자리가 올라갈수록 1, 20……,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그림을 볼까요? 여기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조개껍데기 모양, 보이시죠? 그들은 이 모양으로 0을 나타냈습니다. 0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니 놀랍죠? 또 그들은 점으로는 1을, 선으로는 5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림은 5를 나타내는 선이 한 개, 1을 나타내는 점이 두 개 있으니, 한 자리 수 7이 되겠죠? 세 번째 그림은 얼마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첫째 자리는 5를 나타내는 선이 두 개 있으니 10이 되겠고, 둘째 자리에 있는 점 하나는 20을 나타내는데, 점이 두 개 있으니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째 자리의 10과 둘째 자리의 40을 합하면 5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 볼까요? 두 자리 수인 네 번

째 그림은 얼마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첫째 자리에 선이 세 개, 둘째 자리에는 점이 세 개 있네요. 얼마일까요?

#### 4.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마야 문자의 숫자 표기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실제로 숫자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그림에서 조개껍데기는 0을 나타내고, 둘째 그림에서 첫째 자리에 있는 선은 5, 점은 1이니까 합쳐서 7이 되고, 셋째 그림에서 첫째 자리에 있는 선 두 개는 10이 되고, 둘째 자리에 있는 점은 하나가 20이니까 두 개 있으면 40이 되기 때문에 합쳐서 50이 된다. 따라서 넷째 그림에 있는 것은 첫째 자리에 있는 5가 3개이므로 15에다가 둘째 자리에 있는 20이 3개이므로 60이 되어 합치면 75가 된다. [답] ②

#### [5~6] 이번에는 좌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최근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문화 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 교수님, 이 협약이 갖는 성격과 의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 교수(여) : 문화 다양성 협약이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즉, 각 나라가 자국의 문화 정책을 자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국제 규범이죠. 따라서 각 나라가 자국의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이나 재정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사회자 : 네, 그러면 이 협약이 채택된 배경에 대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교수(남) : 네, 그동안 세계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모든 영역에서 자유 시장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문화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 결과 몇몇 강대국의 소비적인 대중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여 각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파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문화 상품은 다른 상품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사회자 : 이 협약이 우리 문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교수 : 네, 앞으로 우리 문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문화 산업이 장차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교수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협약의 근본정신인 문화 다양성의 뜻을 감안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도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 협약이 앞으로 얼마나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 협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교수 : 글썄요. 대다수 국가가 이 협약에 찬성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이를 비준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은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와 입장이 같은 나라들과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한다면, 국제법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문화와 관련한 통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좌담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사회자가 묻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사회자의 말을 잘 파악하면 된다. 먼저 문화 다양성 협약의 의의를 물었고, 다음에 채택된 배경, 우리 문화 산업에 끼치는 영향, 협약의 실효성 등을 묻고 있고 좌담자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에 규정된 분쟁 조정 절차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 6.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여자 좌담자는 남자 좌담자가 언급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답] ②

[7-14] 쓰기, 어휘·어법

#### 7.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자유 연상)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시각자료는 무인도에 도착한 현대인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어차피 난 혼자였어.’라고 독백하는 ㉠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드디어 자유다!’라고 외치는 ㉡은 일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관광지로 개발하면 좋겠는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은 자연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야자수를 쳐다보며 ‘뗏목부터 만들어야겠군.’이라고 생각하는 ㉠은 적극적인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태평스럽게 누워서 ‘누군가 지나가겠지.’라고 말하는 ㉡은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는 현대인의 모습보다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낙천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답] ③

#### 8. 비판적 사고(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한 나무꾼이 날이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주저앉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날이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은 비능률적인 일이다’라는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끈기 있게 공부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바라는 학습 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한다.’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다. ‘능률적인 학습 방법 모색’이라는 문두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나무꾼’은 학생, ‘나무를 베는 것’은 ‘학습하는 것’, ‘무딘 도끼’는 ‘비능률적인 학습 방법(태도)’을 비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는 ‘끈기 있게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비능률적인 학습 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한다.’고 고치는 것이 좋다. [답] ④

[오답피하기] <보기>의 (나)는 ‘한붓그리기’와 관련된 자료로서, ‘점선 안에 집착’하는 것은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 태도와 연관되며, ‘점선 밖을 생각’하는 것은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창의적 발상과 연관된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점선 안에만 집착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이로부터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추출해 내며, 이를 바탕으로 ‘고정 관념에 빠져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학습 태도 개선’에 적용하는 것은 사고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매우 적절하다.

#### 9.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 및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문두에 제시된 주제가 ‘한국학 육성 방안’이고, ㉠의 상위 항목이 ‘해외 한국학 육성의 의의’임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학문적 연대 증진’이라는 항목에 ‘각국의 문화재 보존 현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위 항목과의 위상이 맞지 않으며 전체 주제에서도 벗어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답] ②

#### 10. 창의적 사고(관점과 표현에 따른 글쓰기)

정답해설 : <보기1>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해 독서해야 한다.’는 베이컨의 독서관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2>는 반복법과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모두 살린 표어는 ‘나를 찾고’, ‘지혜 얻자’를 통해 베이컨의 독서관을 반영하고, ‘책 속에서’의 반복하면서 동시에 전반절과 후반절의 짝을 절묘하게 맞춰 대구의 효과를 살린 ①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1>의 관점은 나타나지만, 반복과 대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보기1>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으며, <보기2>의 표현법 중에서 대구는 사용되었지만 반복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보기1>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으며, 반복과 대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보기1>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으며, <보기2>의 표현법 중에서 반복은 사용되었지만 대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11. 비판적 사고(영상물 제작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영상물의 주대상층이 ‘탈춤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로 설정되어 있는데, ④와 같이 내레이션을 통해 ‘탈춤에 조예가 깊은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한다.’고 계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답] ④

12.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단어 수준의 기준을 보면 ‘단어는 적절하고 맞춤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의 초고에서 ‘연마할’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의 ‘제 소질과 능력’과 적절하게 호응하므로 ‘연습할’로 바꿀 필요가 없고, ‘자부합니다’하는 단어도 바로 앞의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와 자연스럽게 호응하므로 ‘자인합니다’로 바꿀 필요가 없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둘째 문단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계기가 하나만 나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② 둘째 문단에서 첫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의 연결 관계가 자연스럽게 못하므로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③ 셋째 문단의 ‘저는 국어 국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라는 문장에서 ‘깊은 관심’에 대한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⑤ ‘굳히게’는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고, ‘굳히게’가 맞는 표현이므로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13. 어휘·어법의 이해(표준어 규정의 이해와 활용)

정답해설 : <보기1>의 규정 중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이라고 한 뒤에 ㄱ으로 ‘부조’, ‘사돈’, ‘삼촌’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④처럼 ‘㉠의 ‘삼촌’은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이라고 반응한 것은 옳지 않다. ‘짱충짱충’은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 맞지만, ‘삼촌’은 양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④

14. 어휘·어법의 이해(어휘 간의 반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보기1>은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

기2>는 ‘서다’라는 단어의 다양한 반의어를 예문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A]의 경우 ‘시계가 서다’의 반의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시계가) 가다’가 맞고, [B]의 경우 ‘깎이다’와 반의 관계인 ‘서다’가 사용된 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회장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았다.’가 맞고(체면이 서다 ↔ 체면이 깎이다), [C]의 경우 ‘기강이 서다’의 반의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기강이) 무너지다’가 맞다. [답] ③

[15-19] 현대시

(가) 정지용, ‘인동차’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겨울의 시련을 인동차를 마시며 이겨내는 노주인의 모습을 통해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고자 하는 화자의 인내와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다. 하이얀 삼동으로 표현된 겨울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붉은 덩그락의 불과 파란 무순의 이미지는 시련을 암시하고 있다. 인동차는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와 기다림

(나) 박두진, ‘청산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청산의 생명력을 통해 청산과 같은 밝고 깨끗한 세계에의 소망과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의 열망은 반복적인 표현과 영탄법, 유장한 가락과 산문시의 빠른 호흡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인간사에 전이시켜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주제] 깨끗한 세상에의 소망과 그리움

(다)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사랑 노래로 있지만 누가 떠났고 누가 남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단지 실연의 상황만이 제시되었을 뿐 내용은 상당히 암시적이다. 어제의 단절을 보여주는 편지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며, 이는 모든 길이 사라진,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처지는 깨어진 금들을 통해 재확인되며 날리는 눈을 통해 비극적 운명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인이 느끼는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 암울한 시대 상황과 지식인의 불안한 내면

15.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하이얀 삼동’의 겨울이다. 이러한 시대 현

실 속에서 화자는 ‘덩그럭 불’의 붉은 이미지와 ‘무순’의 파란 이미지로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암울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검은 밤과 이에 대비되는 밝고 푸른 산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다)는 과거와 단절된 화자의 상황을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는 돌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처를 깨어진 금을 통해서, 그리고 불안한 화자의 내면을 떠다니는 눈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④ (나)의 특징이다. ③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가)의 작품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파악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작품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노주인이 ‘책력도 없이’ 삼동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추위로 표현되고 있는 당대의 시대적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주인, 즉 화자는 알기에 시간을 초월하여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④

17. 추론적 사고(어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시적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요,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이다. 이는 눈 맑고 가슴 맑은 사람이다. 화자는 어둠으로 표현된 밤에 이와 같은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다. ㉡는 화자가 이별을 한 대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연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대와의 이별로 인해 화자는 길이 사라지는 암담함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방황은 내려앉지 못하고 한없이 떠다니는 눈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답] ⑤

18. 추론적 사고(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나)의 특징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 세 가지이다. 이러한 세 가지는 ㉠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산아’라고 부름으로써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산아’에 따르는 수식어의 변용을 통해 반복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철철철’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산의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답] ①

19. 창의적 사고(작품의 창작 구상 파악)

정답해설 : 작품의 창작 구상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고 했다. 이는 결국

(다)에 드러난 창작 구성을 먼저 파악해야 하므로 결국은 (다)에 드러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전체로 본다면 화자가 그대와의 단절로 인해 방황하고 있고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냉소적 어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이 보일 뿐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랑한다’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감정이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③ ‘몇 송이 눈’의 명사형으로 끝맺음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④ 마침표를 비롯한 쉼표 등의 구두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3, 4행의 길, 8행의 추위, 10행의 눈, 12행의 눈 등 곳곳에서 조사의 생략이 보인다. ⑤ 현실의 상황을 추위와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20-23] 기술,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와 특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여러 모로 장점이 많은 자동차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와 특성을 가솔린 엔진과 대조하면서 설명한 글이다. 작동 원리로 보면, 압축된 혼합 기체를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 동력을 얻는 가솔린 엔진과 달리 디젤 엔진은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착화되도록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또, 사용하는 연료도 디젤 연료가 점성이 강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좋은 연비를 내는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주제] 가솔린 엔진과의 대조를 통해 알아본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와 특성

#### 20. 사실적 사고(세부적 내용의 확인)

정답해설 : 마지막 단락에 디젤 엔진이 작동 원리상 가솔린 엔진보다 더 튼튼하고 고장도 덜 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런 경우를 내구성이 강하다고 한다. ‘내구성(耐久性)’이란 ‘물질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오래 견디는 성질’을 뜻한다. [답] ②

#### 21.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기화기와 점화 플러그는 디젤 엔진에는 없고 가솔린 엔진에만 있는 부품들이다. 가솔린 엔진은 기화기에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여 실린더에서 압축한 후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 동력을 얻는다. 이와 달리, 디젤 엔진은 실린더 안으로 공기만을 흡입하여 피스톤으로 압축시킨 다음 거기에 연료 분사기로 연료를 분사하여 착화되도록 한다. [답] ②

#### 22.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넷째 단락의 ‘탄소가 많이 연결된 탄화수소물에 고온의 열을 가하면 탄소 수가 적은 탄화수소물로 분해된다.’는 내용을 통해 ③과 같은 추리가 가능하다. 이를 전제로 하면, 많은 수의 탄소를 가진 경유에 고온의 열을 가하면 탄소 수가

적은 가솔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경유가 휘발유보다 점성이 더 강하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에 어긋나는 추론이다. ② 경유가 가솔린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했으므로, 올바른 추론이 아니다. ④ 경유가 가솔린보다 증발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⑤ 경유가 가솔린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은 추론이다.

### 23. 어휘·어법의 이해(유의어의 구별)

정답해설 : 문맥상 디젤 엔진 제작 기술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아졌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보기>의 ( ) 안에는 ‘개선’, ‘진보’, ‘향상’, ‘발전’ 등의 어휘들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개조(改造)’란 ‘고치어 다시 만듦’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답] ①

### [24-30] 문학 복합 [수필+고전시가]

#### (가) 양태사, ‘야청도의성’

지문해설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작자가 발해국의 부사(副使)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즈음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 이 작품은 스물네 줄로 된 칠언고시(七言古詩)인데, 의례적인 수사법을 버리고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여 감동을 자아낸다. 이 시는 특히 청각적 심상이 주제로 승화되는 고도의 표현 기법을 구사했다.

[주제] 향수(鄉愁), 가을 밤에 고국을 그리워함

#### (나) 정철, ‘속미인곡’

지문해설 : 정철이 관직을 잃고 고향인 전남 창평에 있을 때 지은 작품으로, 홍만중(洪萬宗)과 김만중(金萬重)에게 극찬을 받은 가사이다.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빌려 임과 이별한 사연을 하소연하고 있다. 임과 이별한 것을 오직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려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 속에 작자의 충절이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이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으로 비유되어 더욱 문학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대화 형식을 빌린 표현의 참신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제] 연군의 정

#### (다)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지문해설 : 생활 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감정을 드러낸 글이다. 훌륭한 공지를 발견했다는 기대가 결국 그 공지 또한 이윤 추구의 대상에 지나지 않더라는 사실의 확인으로 실망하게 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필자는 ‘두

다리 쪽 뺏고 누워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휴식과 안식을 줄 공간을 원하고 있다. 이는 소유욕과 물질적 가치와 이윤 추구로 인해 각박해진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주제] 소유욕과 물질적 가치 추구로 인해 각박해진 현대적 삶의 공간

24.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고향의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천상 백옥경의 임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다)의 필자는 '두 다리 쪽 뺏고 누워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휴식과 안식을 줄 공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세 작품 모두에서는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답] ④

25.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바람'은 '자유로움'과는 연관이 없다. 다듬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계절감과 더불어 애상감의 시적 흥취를 유발하고 있다. ② 향수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④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알린다. ④ 과거 고향에서 들던 소리와 현재 듣는 소리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26. 추론적 사고(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는 '속미인곡'이 지은이 정철의 상소문이라는 가정 하에 의도를 파악케 하는 문제 유형이다.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는' 의도가 드러난 표현을 찾으려면 된다. ㉞은 '내가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과를 자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답] ④

27.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A]는 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드러나 있다. [B]는 왜꼬아리 분에서 트는 싹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이로 보아 [A], [B] 모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답] ①

28. 추론적 사고(심리의 파악과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현대 문명이 가져다주는 욕망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어진 작품은 이러한 현대적 삶이 가져다주는 휴식과 안식의 부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공간은 이윤 추구의 욕망의 통로가 될 뿐이어서 필자는 '두 다리 쪽 뺏고 누워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휴식할 공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필자가 인식하는 기저에는 물질적 가치가 증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이다. [답] ⑤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왜꼬아리 분(盆) 안의 공간을 가리킨다. ㉑, ㉒, ㉓, ㉕는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휴식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답] ㉕

30. 어휘·어법(어휘의 쓰임 파악)

정답해설 : (다)의 ‘풍기는’은 기본형이 ‘풍기다’로 주로 비유적으로 쓰이면서 ‘어떤 분위기가 나다. 또는 그런 것을 자아내다.’는 의미이다. ‘야성미가 풍기는 몸짓 / 이 작품에서는 인간미가 풍긴다.’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㉒이다. [답] ㉒

[오답피하기] ㉑, ㉕ 겨, 검불, 먼지 따위가 날리다. 또는 그런 것을 날리다. ㉓ 냄새가 나다. 또는 냄새를 퍼뜨리다. ㉔ 짐승이 사방으로 흩어지다. 또는 그런 것을 흩어지게 하다.

[31-34] 언어, ‘언어의 고유성과 다양성’

지문해설 : 외국어를 통해 자국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고, 자국어의 고유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글쓴이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개별 언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서 어떤 언어든 간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유카어의 증거법과 한국어의 높임법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들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이다.

[주제] 언어 간의 비교·대조를 통한 자국어 재인식의 필요성

31.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한국어에는 없는 특성인 투유카어의 증거법을 한국어에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 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했으므로, ㉑과 같은 추리가 가능하다. [답] ㉑

32. 사실적 사고(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라)에서는 한국어의 특성을 드러내는 높임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며,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답] ㉔

[오답피하기] ㉑ (가)에서는 피테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㉒ (나)에서는 투유카어의 증거법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㉓ (다)에서는 증거법을 놓고 투유카어와 한국어를 대조하고 있다. ㉕ (마)에서는 ‘외국어는 자국어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3. 추론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증거법은 투유카어의 특성이고, 높임법은 한국어의 특성이다. 즉, 그들은 각각 투유카어와 한국어라는 개별 언어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는 특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⑤에서처럼 어느 것이 고유성을 더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답] ⑤

34. 추론적 사고(관점의 추리 및 적용)

정답해설 : 글쓴이는 다양한 개별 언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통하는 것이 <보기>의 ‘ㄷ’과 ‘ㄹ’이다. ‘ㄷ’은 어떤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인류가 이룩한 문명과 지혜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말로, 여러 가지 개별 언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ㄹ’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는 언어들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자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보기>의 ‘ㄱ’은 문자 언어는 본능이 아닌 문명의 산물임을 강조한 말로, 이 글에서 보이는 글쓴이의 언어관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ㄴ’은 개별 언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갖는 보편적인 특성을 말한 것이다.

[35-39] 과학, 이글루에 담긴 과학적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이누이트의 주거 시설인 이글루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눈을 가지고 주거 형태인 집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난방을 하는지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만한 화제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해가고 있다. 이글루의 온도가 왜 바깥보다 높은지, 안이 추울 때는 어떻게 온도를 높이는지 등이 해명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주제] 이글루의 건축과 이누이트의 생활에 담긴 과학적 원리

35. 사실적 사고(정보의 개괄적 확인)

정답해설 : 이누이트들이 이글루가 추울 때 사용한 방법은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이때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이 효과가 있는데, 이는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했다. 그들은 복사, 기화의 의미는 몰랐을지라도 나름대로 그들의 생활에는 경험을 통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은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④, ⑤는 3문단에서 온실 효과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36. 추론적 사고(내용 전개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이글루라는 구체적인 현상에 담겨 있는 과학적 원리, 즉 물의 용해와 응고, 복사, 기화 등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다.

[정답] ⑤

37.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ㄴ’은 둘째 단락에서 이글루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체에 부딪힌 빛의 산란 때문에 뿌옇게 보인다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질문이다. ‘ㄷ’은 넷째 단락에서 추운 때에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어는 온도까지 빨리 도달한다고 한 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③

38. 어휘 · 어법의 이해(단어의 구조)

정답풀이 : ㉠은 재료인 ‘벽돌’과 그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결과물인 ‘집’이 하나로 합쳐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앞말(벽돌)’로 만든 ‘대상(집)’을 뜻하는 말이 된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것은 ㉠이다. ‘두부콩’은 앞말인 ‘두부’는 결과물이고 뒷말인 ‘콩’이 그 재료이기 때문이다. 즉, ‘앞말(두부)’을 만들기 위한 ‘재료(콩)’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시된 ‘벽돌집’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 [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유리(재료)’로 만든 ‘창(대상)’ ③ ‘보리(재료)’로 만든 ‘밥(대상)’ ④ ‘비단(재료)’으로 만든 ‘옷(대상)’ ⑤ ‘밀짚(대상)’으로 만든 ‘모자(대상)’

39.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의 이해)

정답풀이 : 이 글에는 이글루를 만드는 원리와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정보는 눈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이글루가 어떻게 얼음집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준 것이다. 여기에 이글루 제작의 핵심 사항인 눈의 활용이 거론된다. 즉, 눈 벽돌을 쌓아 이글루를 만든 후에 이글루의 내부에서 불을 피워 일부러 눈이 녹게 만들어 그 눈으로 하여금 눈 벽돌의 사이를 메워 탄탄한 이글루를 완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눈 벽돌집’이 ‘얼음집’으로 완벽하게 변모되는 것이므로 이글루에서 ‘접착제’ 구실을 하는 것은 바로 ‘눈’이라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불 자체가 접착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은 난방을 위한 것이다. ④ 언급되지 않은 대상이다. ⑤ 이글루의 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40-43] 인문, 조희룡, ‘이향견문록 서’

지문해설 : 이 글은 친구가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傳記)로 지은 ‘이향견문록’을 읽고 그 앞에 붙일 서문으로 작성한 글이다. 글의 내용이 지적(知的)이면서도 조선 후기 지식인의 내면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금강산 기행에서 느낀 바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세상에 알려져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많은 사

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과 교훈을 느껴주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이향견문록 서'를 쓰는 이유와 목적

#### 40. 추론적 사고(글쓴이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가 '이향견문록 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이향견문록'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않았지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 속에서 글쓴이가 당대의 정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교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사관이 기록한 역사 기록 이외에 이 책에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③ 저술된 글로써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④ 친구인 겸산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이들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매우 진중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⑤ 글쓴이나 그 친구인 겸산이나 모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다.

#### 41. 추론적 사고(문맥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각자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존재를 지칭하는 어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a ~ e 중에서 ⑥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모두 이런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⑥는 그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가리고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답] ②

#### 42. 창의적 사고(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은 세상에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만한 재주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전기를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수록되었을 사람들은 대부분 권세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은 바로 이런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삶을 꾸려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효도를 하려 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탄식하는 내용이다. ② 매화의 향기와 자태를 예찬하는 내용이다. ③ 은자(隱者)로 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임금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④ 오랜만에 고향의 경치를 둘러보며 변화가 심한 인간사와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 43. 어휘 어법(관용어구의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유재건’은 글쓴이인 ‘나’의 친구로 나온다. 그것도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이 유사한 뜻이 통하는 친구이다. 이렇듯 서로가 생각과 뜻이 같은 줄을 알기 때문에 ‘유재건’은 ‘나’에게 ‘이향견문록’의 서문을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는 그 글에 드러난 친구의 생각과 사고에 깊이 동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서문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계는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라는 의미를 지닌 ①이 가장 적절하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적대 관계인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와 월나라의 왕 구천(句踐)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하여야 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③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44-47] 예술, ‘현대 공연 예술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현대 예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형식과, 공연 장소, 관습 등을 파괴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대 예술의 특징은 한 마디로 장르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의 다양한 장르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주제] 장르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현대 공연 예술의 특징

#### 44.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현대 공연 예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밝히듯이 장르 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현대의 공연 예술은 이전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1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본보다는 즉흥적인 연출을 시도하고 있고,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정된 대본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은 전혀 잘못 파악한 것이다. [답] ⑤

#### 45. 비판적 사고(새로운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황후의 탄식’에 대한 비평문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글에 나타난 핵심 논지에 어긋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황후의 탄식’은 기존의 형식에서 벗

어난 ‘춤연극’의 사례로 글쓴이가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마치 연극 무대처럼 펼쳐지며, 다양한 장면들이 몽타주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배경 또한 상징적 이미지를 중시한다고 했으므로 자연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나 배우의 사실적 연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전의 연극이나 영화에서 중시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실적이 아니라 상징적, 시적 의미가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46. 어휘·어법의 이해(어휘의 쓰임 파악)

정답해설 : ㉠에서의 ‘뒤’는 접두사로 ‘몹시, 함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서의 ‘뒤섞어’ 역시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다른 사례로는 ‘뒤흔들다, 뒤틀다’가 있다. 접두사 ‘뒤’는 이 밖에도 ‘반대로, 뒤집어’의 의미(뒤엎다, 뒤바꾸다)와 ‘온통, 전부’의 의미(뒤덮다)를 지니기도 한다. 나머지의 ‘뒤’는 선후에서 ‘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이다. [답] ③

47. 어휘·어법의 이해(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은 기존의 공연 예술에서 중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대의 공연 예술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경향의 특징이다. 즉, 현대의 공연 예술에서는 정해진 구조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공연이 아니라 이미지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에 해석의 다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논리와 이성이 투영되지 않은 ‘신체의 언어’에 가장 가깝다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전의 공연 예술에서 중시하는 것들이다. [답] ①

[48-51] 고전산문, 작자 미상, ‘유충렬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주몽 신화의 전통을 잇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적 구조를 잘 유지한 소설로, 일상적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주인공이 일시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가문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전형적인 배경과 구조를 보여 주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영웅 소설이다. (가) 부분은 간신 정한담에 의해 유충렬의 아버지인 유심이 귀양을 가는 장면이고, (나) 부분은 대원수가 된 유충렬이 정한담에게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는 천자를 구하는 장면이다.

48.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모든 것을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천기를 살펴본 유충렬이 천자를 구하는 장면으로 병렬적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대화 위주의 장면, (나)는 요약 서술 ③ (가)는 궁궐이라는

공간, (나)는 금산성과 황성 밖 ④ (가)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만 제시되어 있고, (나)는 편집자의 논평이 있다. ⑤ (가)는 대화, (나)는 묘사 위주로 되어 있다.

49. 추론적 사고(인물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남적 토벌하는 것에 대한 내용과 유심을 처벌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한 결정권자는 천자가 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찬성자와 반대자는 다르다. 우선 남적 토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정한담과 최일귀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유심이다. 유심의 처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역시 정한담과 최일귀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왕공렬이다. [답] ③

50.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대원수 유충렬이 적병과 싸우고 있는 때 빗방울이 내려 천기를 살피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재미성이 떨어지는 변고가 있다. 이것은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암울한 분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유충렬이 천사마를 타고 번수 가에 이르러서 천자를 살해하려는 정한담을 쫓아가 목을 산 채로 잡아온다. 이런 장면으로 볼 때 정한담이 도망가면서 여유와 의연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51. 어휘 어법의 이해(속담의 추리)

정답해설 : (가)에서는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남적을 치도록 기병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유심이 이를 반대한다. 이에 대해서 천자는 유심을 신뢰하지 않고 정한담과 최일귀를 신뢰하여 유심을 귀양 보낸다. 하지만 (나)에서는 정한담이 오히려 백사장에 엮어진 천자를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천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심의 말을 듣지 않고 정한담의 말을 들었건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니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것으로, 속담에 빗대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③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조금 주고 그 대가를 많이 받는다는 말 ⑤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경우를 이르는 말

[52-55] 사회, '옵션'

지문해설 : 이 글은 '옵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옵션의 정의와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탈레스와 올리브유 압착기 사례를 이용하여 옵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고, 또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한다.'는 옵션의 개념이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현대의 주식 시장의 옵션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개념을 더욱 명

확히 다지고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는 또 옵션 보유자인 경영자의 행동과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주제] 옵션의 개념 이해와 효과

### 5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옵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옵션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옵션은 반드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해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②는 이런 옵션의 특징을 그대로 잘 살려 쓴 내용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주식 옵션은 일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살 수 있다.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미래 정해지는 것이고, 그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이 글의 서두 부분에서 옵션이 금융 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옵션 프리미엄은 나중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옵션을 처음 살 때 지불하는 돈이므로 옵션을 행사한 후에 갖는 것이 아니다.

### 53. 추론적 사고(상황의 이유 파악)

정답해설 :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수확기에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옵션 개념이다. 본문의 논리대로 이 옵션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풍년이 들어 압착기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압착기 임대료가 올라가면 탈레스는 자신이 지불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압착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으므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나 흉작이 되면 압착기를 빌리려고 사둔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압착기를 빌리기 위해 지불한 돈만 날리게 될 뿐 더 큰 손해는 없기 때문이다. 즉, 압착기를 빌려줌으로써 벌어들이 수 있는 임대료가 자신이 압착기를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답] ⑤

### 54.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A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보기>의 그래프에 적용시켜 보는 문제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그래프에 정확히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와 ㉡가 보여주는 상황을 통해 옵션을 행사할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은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었을 때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1만 원 이전의 구간인 ㉡에서 옵션을 행사했다는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겨야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율기를 지니고 있다. ②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게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⑥를 토대로 본다면 손실은 처음 투자한 금액인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옵션 프리미엄을 구입할 때의 가격이 일단 묶여 있는 것이므로 ⑥는 0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⑤ 옵션으로 인한 수익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지만, 옵션으로 인한 손해는 1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옵션이 지닌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④는 소득이 무한정 증가할 수 있음을, ⑥는 손해가 1000원 이상을 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5. 추론적 이해(중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제시하는 것은 경영자가 옵션을 지님으로써 옵션 관련 사업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주식 가격의 상승을 적극적으로 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경영자들이 자신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답은 ②가 가장 적절하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노동자의 복지 증진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③ 경영자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 사업의 안정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영자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 사업의 다각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경영자의 사회 공익에 대한 언급은 없다.

[56-60] 현대소설, 최인훈, '광장'

지문해설 : 이 소설은 남북 분단의 비극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남과 북에 대한 객관적 반성이 나타나 있고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상황의 비극성이 밀도 있게 표현되어 있다. 주인공 이명준은 철학도로서의 밀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광장'을 찾아 월북하고, 그 '광장'에서 절망을 한 후 은혜와의 사랑이라는 '밀실'을 찾는다. 다시 전쟁이란 '광장'을 거쳐서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밀실'인 중립국을 택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큰 새'는 북에서 사랑했던 은혜를 상징하고, '꼬마 새'는 은혜가 낳은 딸을 상징한다. 그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는 사랑만이 참다운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광장'이며, 동시에 이념이 배제된 '밀실'이다. 따라서 이명준은 최후에 그만의 '광장'인 동시에 '밀실'인 바다를 택하여 자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준의 자살로 마무리된 결말 부분은 냉전적 사고가 지배하던 당시의 시대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의 추구

56.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이명준이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

며, 중간중간에 이명준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풍자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고, 이야기의 비극성은 약화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는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밀실’과 ‘광장’을 추구하는 이명준의 독특한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57.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문맥상 ‘사복 자리’에서 주인공은 ‘삶의 광장’이 극도로 좁아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현재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밀실’인 중립국을 택하여 배를 타고 제3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배 위에서 또 다시 ‘광장’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이 ‘사복 자리’에서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군.’이라고 한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58. 비판적 사고(외재적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장황한 진술에 얽매이지 말고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보기>에서 ‘상황의 구체적 의미’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가졌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고 한 ⑤번이 상황의 구체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답] ⑤

59.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추리)

정답해설 : 문맥상 ㉠은 큰 새(=은혜)와 꼬마 새(=딸)가 마음껏 날아다니는 바다를 보며 ‘푸른 광장’임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명준이 깨닫게 된 내용이다. 따라서 ‘그 너럭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 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유토피아를 찾다가 남한과 북한 사회에 모두 환멸을 느끼고 6·25 전쟁에 참전한 후 끝내는 중립국을 선택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으로 보아야 한다. [답] ④

60. 어휘·어법의 이해(단어의 확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서 ‘불타다1’은 기본적 의미이고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불타다2’는 확장된 의미이다. ㉠는 저녁놀이 불타는 것이므로 기본적 의미가 아니라 확장된 의미인 ‘불타다2’에 해당한다. 그런데 ㉡의 ‘손꼽아’는 문맥상 ‘손가락을 꼽아 수를 세다.’는 기본적 의미로 풀이되므로 ㉠와 쓰임이 다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물오른 싱싱한 생선’에서 ‘물오른’은 실제로 물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싱싱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 ③ ‘두령을 수놓고’에서 ‘수놓고’는 실제로 수를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 ④ ‘바람 소리도 잠들고’에서 ‘잠들고’는 실제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람 소리가 사라져 없어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 ⑤ ‘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에서 ‘살찌게’는 실제로 살이 찌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록을 더 짙게 보이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